

7월 3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3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서머앨리 재개.. 연중최고	뉴욕 증시가 30일(현지시간) 사흘만에 반등하며 서머 앨리를 재개했음.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진 가운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월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었음. 주요 지수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3.51포인트(0.92%) 상승한 9,15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54포인트(0.84%) 오른 1,98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1.60포인트(1.19%) 상승한 986.75로 각각 마감했음. 뉴욕 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음. 다우케미컬, 모토로라, 마스타카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모멘텀이 되살아 났음. 특히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4주 연속 60만건을 하회, 실업수당 청구가 이미 고점을 쳤다는 인식이 오히려 호재가 되었음.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60만건 하회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 2만 5,000건 증가한 58만 4,000건으로 집계되었음. 4주 연속 60만건을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57만 5,000건이었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달 매주 60만건을 상회했지만, 이달 들어 4주 연속 이를 하회했음.
日 2분기 산업생산 56 년래 최대 증가	일본의 6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4% 증가,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경제산업성이 30일 발표. 2분기 산업생산 증가폭은 전분기대비 8.3%으로 56년만에 최대. 경제산업성은 또 제조업체들이 7월 1.6%, 8월엔 3.3% 생산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음. 전세계적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수요가 늘면서 제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일본이 전후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6월 적립식펀드 판매액 120억↓..`2년3개월만 에 감소	30일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6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적립식펀드 전체 판매잔액은 전월대비 120억원 감소한 77조 8,960억원을 기록. 적립식펀드 전체 판매액이 전월비 줄어든 것은 2005년 3월 적립식펀드 집계를 시작한 이후 3번째이고, 2007년 4월 후로는 처음. 연초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오르면서 차익실현을 위한 적립식펀드 환매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됨. 코스피는 작년 12월말 1124선에서 6월말 1390선까지 23.7% 가량 상승했었음.

제목	주요 내용
10대중 9대` 삼성 LED TV, 미국시장 `장악	삼성전자(005930)는 30일 시장조사기관인 NPD의 자료를 인용, 지난 상반기 미국 LED TV 시장에서 수량기준 점유율이 9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7.2%대비 17.6%포인트 상승한 수준. 삼성에 이어 소니가 2.8%, 비지오와 LG는 각각 1.3%, 1%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LED TV 신제품 6000/7000 시리즈를 시작으로 4월에는 240Hz를 구현하는 80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음..
정부, 2015년 줄기세포 R&D 1,200억원으로 확대	교과부는 제 4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줄기 `줄기세포 분야 글로벌 톱 5 진입(2015)`을 위한 국가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는 교과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기재부 5개 부처가 참여. 정부의 줄기세포 R&D 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줄기세포 R&D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임. 줄기세포 시장은 2005년 69억달러에서 2012년 324억달러로 연평균 24.5%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됨. 이에 따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선점을 위한 공격적 투자와 연구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